

농촌 이주 및 방문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A Survey Study on the People's Needs and Opinions for Migration and Visitation

임상봉* · 한경수** · 홍찬선***

Sang Bong Im · Kyung Soo Han · Chan Sun Hong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article are to identify the people's needs and opinions for rural migration and visitation, and suggest implications on policy making. In order to select respondents without bias, the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systematically sampled and interviewed by questionnaire. College students as a representative group of young people were also sampled and interviewed. The number of questionnaires used for analysis was 970.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 that the respondents recognize rural areas are good for health, experiential tourism and rests. The demands for visiting rural areas were high especially in the ages of the 30s to 40s. The aged urban people with 50 or more had high demands for moving to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rural areas be developed by utilizing the concepts of health, experiential and resting tourism. And the convenience and attractiveness for rural visitors sh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locations and endowed resources.

주요어(key words) : 농촌(Rural Areas), 이주(Migration), 방문(Visitation)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imsb@ekr.or.kr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계장. e-mail: hanksks@ekr.or.kr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e-mail: c.hong1@hotmail.com

1. 서 론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등 농산물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희찬 외, 2005; Taylor, 2008;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2007).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인구 유치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이 추진된 데에는 농촌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활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농촌방문객 증가와 같은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서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무역자유화라는 국제규범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한편으로는 농촌에서도 민간 중심의 자유경쟁이 강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된 낙후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농촌개발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과 같은 공공적 기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도시민을 포함한 납세자 국민의 이해와 지지 및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Bennett, et. al., 2004). 그러므로 앞으로 농촌개발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낙후된 농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자생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농촌인구 유치 관련 정책의 수요자인 도시민의 요구와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촌과 농촌개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파악하여 농촌개발 정책 및 사

업수행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농촌과 농촌개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농촌이주 및 방문과 관련된 의향을 토대로 농촌인구 유치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무작위층화표집법을 사용하여, 지역과 직업군 및 연령을 안배하여 고르게 조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초·중·고등학교를 시도별 인구분포를 고려 무작위표본추출하고, 선정된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병행하였다.

설문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 초등학교 1, 6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하여 각 학년별 임의의 1개 반씩을 배정하고, 반별 5명씩 선정하여 2004.7.9~8.26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설문은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농업기반공사) 도본부와 지사에 위탁하여 각 학교에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총 1,03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97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신뢰수준 95%에서 분석 결과 해석상의 최대허용오차는 $\pm 3.1\%$ 이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설문자료를 통계분석하는 데에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Ver 11.0)을 이용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구성(인)	%
지역 (n=964, 결측치 6)	도 시	723	75.0
	농 촌	241	25.0
연령 (n=968, 결측치 2)	30세 이하	220	22.3
	31-40	253	26.1
	41-50	421	44.5
	50세 이상	64	6.6
직업 (n=970)	농림어업	85	8.8
	자영업	169	17.4
	회사원	164	16.9
	공무원	105	10.8
	전문직	71	7.3
	주 부	166	17.1
	학 생	195	20.2
	무 직	15	1.5

분석에 이용된 설문 내용은 일반사항과(연령, 직업 등), 농촌이주의향(농촌에 거주, 이주의향, 농촌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농촌 이주시기, 농촌이주시 주택위치, 이주시 준비해야 할 것)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농촌에 대한 방문 및 거주 의사는 연령과 같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에 따라 생활이나 거주 관련 주요 관심사가 달라 여가활동이나 거주목적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농촌에 대한 방문이나 거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의향이 강할수록 장차 농촌에 대한 방문 수요나 거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형성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나 의향은 주어진 여건 하에 일정한 확률 범위 내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행태는 방문, 주기적인

방문, 거주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행태는 연령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나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은 유인요인과 압출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도시가 젊은 청장년 세대에게 고용과 자녀교육을 위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대표된다면, 인제 환경이 중시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농촌은 심신의 건강과 회복을 제공하는 휴양과 휴식공간이자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방문 및 거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시대흐름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Fishbein과 Ajzen 및 Chell 등은 어떤 대상에 대한 초기신념의 변화와 태도 및 의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Fishbein and Ajzen, 1975; Chell, 1985). 그리고 의도의 변화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매개적인 사건이라는 사회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태도, 농촌 방문 및 이주의사, 이주시기 등과 같은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농촌 방문과 이주에 대한 미래의 행동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이나 도농교류사업 및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은 매개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은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의 유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촌이주에 대한 의식 분석 결과

3.1. 방문 및 이주 의사

농촌거주나 방문에 대한 의향은 연령별로 다르게 조사되었다. 거주나 방문의향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 거주민은 81.8%가 농촌 방문이나 이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에서 70.3%, 30대에 87.3%, 40대에 84.1%, 50대 이상에서 88.2%로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6년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도시민 중 71.3%가 은퇴 후나 여건이 마련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동원·박혜진, 2007).

〈표 2〉 연령별 농촌 방문 및 이주 의사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농촌에 이주해 살고 싶다	14(6.6)	24(11.7)	44(12.3)	9(17.6)	91(11.0)
농촌에 살고 싶지 않다	26(12.3)	20(9.8)	39(10.9)	4(7.8)	89(10.8)
농촌에 별도의 집을 마련해 왕래하며 살고 싶다	90(42.5)	109(53.2)	194(54.2)	26(51.0)	419(50.7)
생각해 본적 없다	37(17.5)	6(2.9)	18(5.0)	2(3.9)	63(7.6)
이주는 어렵지만 자주방문하고 싶다	45(21.2)	46(22.4)	63(17.6)	10(19.6)	164(19.9)
계	212(100)	205(100)	358(100)	51(100)	826(100)

()는 %
 $\chi^2=71.037$, $df=12$, $p<0.05$

이주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 50대 이상이 17.6%, 40대가 12.3%, 30대가 11.7%, 20대 이하가 6.6%로 나타났고, 농촌에 별도의 집을 마련해 도시 농촌을 왕래하며 살고 싶다는 의견이 50대 이상에서 51.0%,

40대가 54.2%, 30대가 53.2%, 20대 이하에서 42.5%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 대한 거주 수요는 노후 무렵이 많고, 농촌 방문 수요는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에 특히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2. 이주시기 및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위치

농촌에 이주하여 살고 싶다는 응답자와 별도의 집을 마련하여 왕래하며 살고 싶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주 시기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11년 이후가 70.9%, 6년에서 10년 이내 가 20.1%, 4년~5년 이내가 5.0%, 3년 이내가 4.0%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주 시 거주하고 싶은 장소로는 마을 외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 형태가 39.5%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존마을 내부 및 인접 37.2%, 신규로 주택단지 조성된 곳 22.5%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3〉 농촌 이주 시기

구 분	빈도	%
3년 이내	19	4.0
4년~5년 이내	24	5.0
6년~10년 이내	96	20.1
11년 이후	339	70.9
계	478	100.0

〈표 4〉 농촌 이주 시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위치

구 분	빈도	%
기존 마을 내부 및 인접	184	37.2
마을외부 단독주택(본인소유 토지)	195	39.5
신규로 주택단지 조성된 곳	111	22.5
기타	4	0.8
계	511	100.0

3.3.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는 것은 은퇴 후 휴양 또는 레저 농업(28.5%)이었고, 그 다음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16.7%) 등의 순이었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고려한 마을정비의 경우, 휴양과 주말 농장 기능을 겸비한 형태와 도시근교로서 인근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현대식 생활환경정비가 다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은 “은퇴 후 휴양+레저 농업(28.5%)”,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16.7%)”, “휴양단지·수련원·관광농원 경영(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30대에서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에 대한 응답이 많고, 50대 이상에서 휴양단지, 수련원, 관광농원 경영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카이제곱 검증결과 통계적인 유의차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령별로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에 뚜렷한 의견차는 없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연령과 상관없이 농촌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은 은퇴 후 휴양과 레저농업임을 의미한다.

〈표 5〉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농사 전업(마을 일에 소극적 참여)	20(7.5)	26(7.7)	57(9.5)	13(13.5)	116(8.9)
마을 일에 적극적 참여 (이장, 지도자등)	11(4.1)	21(6.3)	42(7.0)	9(9.4)	83(6.4)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	48(18.0)	66(19.6)	94(15.6)	9(9.4)	217(16.7)
농촌체험활동 등의 『도우미』 등으로 활동	16(6.0)	38(11.3)	60(10.0)	12(12.5)	126(9.7)
은퇴 후 휴양+레저 농업	82(30.8)	94(28.0)	170(28.2)	25(26.0)	371(28.5)
휴양단지, 수련원, 관광농원 경영	42(15.8)	45(13.4)	76(12.6)	17(17.7)	180(13.8)
전문 식당 경영	12(4.5)	14(4.2)	32(5.3)	4(4.2)	62(4.8)
펜션 등 민박 경영	33(12.4)	25(7.4)	62(10.3)	6(6.3)	126(9.7)
기타	2(0.8)	7(2.1)	9(1.5)	1(1.0)	19(1.5)
계	266(100.0)	336(100.0)	602(100.0)	96(100.0)	1,300(100.0)

()는 %, 중복응답
 $\chi^2=26.145$, $df=18$, n.s.

3.4. 농촌이주시 준비해야할 사항

농촌이주 계획 시 준비해야할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이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농촌이주 계획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고(23.1%), 그 다음 자녀들의 교육 여건(17.3%), 농경지, 택지구입 및 주택건축 비용(16.1%),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 형성(15.1%) 등을 들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설문 응답자들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주할 때에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농경지나 택지 구입 및 주택건축 비용 마련에 버금가게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도농교류가 촉진되어 도시민들과 농촌주민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촉진하

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농촌에 이주한 도시민 중에는 주택 건축에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투입한 후 마을 주민들과의 유대형성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김용수, 2007), 정책 지원 측면에서도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여건 개선 및 마을 주민과의 유대강화 기회 제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이 주택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농촌이주 시 준비사항

구 분	빈 도	%
친환경 영농 교육	124	8.1
이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	352	23.1
농촌관광 경영자 교육과정 이수	34	2.2
농경지, 택지구입 및 주택건축비용	245	16.1
마을 지도자 교육과정 이수	18	1.2
자녀들의 교육 여건	264	17.3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귀농 준비	141	9.2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는데 노력	110	7.2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형성	230	15.1
기타	7	0.5
계	1,525	100.0

주: n=524, 중복응답

3.5. 농촌에 살거나 방문을 좋아하는 이유

농촌에 살거나 방문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9.6%), 조

용한 곳에 살고 싶어서(17.3%), 고향 같아서(15%), 평온하고 정이 있기 때문에(14.8%) 등의 순이었다. 이는 농촌관광과 도농교류를 고려하여 농촌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을 소재로 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또는 휴양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감있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농촌이 “고향 같아서” 좋다는 응답은 농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특히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농촌이 좋다는 응답은 20대 이하보다 30대 이상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았고, 20대 이하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와 “평온하고 정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표 7〉 농촌을 좋아하는 이유

구 분	빈도	%
고향이 좋아서(고향 같아서)	275	15.0
평온하고 정이 있기 때문에	271	14.8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318	17.3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59	19.6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	440	24.0
농사를 짓기 위해	37	2.0
자녀에게 농촌을 체험시키기 위해	127	6.9
기타	6	0.3
계	1833	100.0

주: n=650, 중복응답

4. 농촌이주 및 방문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의식조사결과 연령별 농촌 및 농촌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농촌개발은 지역 자체의 내발적 잠재력의 극대화과 함께 외부의 인력, 자본, 경험 등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개발방식이 자리매김 할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개발방식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틀 속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농촌이주 및 방문 관련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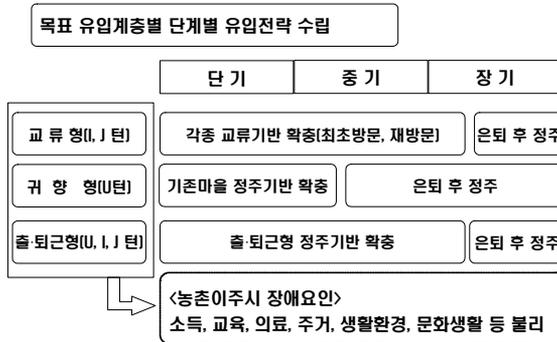
도시민 중에서 “농촌에 이주하고 싶다”, “농촌에 별도의 집을 마련해 왕래하며 살고 싶다”, “이주는 어렵지만 자주 왕래하고 싶다”란 의견이 80%를 넘고 있다.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중 70% 이상이 농촌이주 시기를 10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 이주시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위치는 40%가 마을외부 단독주택, 23%가 신규 주택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에 23%, “이주 전부터 마을 주민 간 유대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민도 15%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도시민은 당장 농촌에 이주하기 어렵지만 농촌지역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이주 및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도시민은 농촌을 알고 싶어 한다. 농촌이주 시기를 10년 이후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대다수로 이는 희망하는 시기가 주로 현 직업에서의 은퇴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에 따라 준비사항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선부른 이주보다는 충분한 시기를 두고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 형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도농교류가 촉진되어 도시민들과 농촌 주민들 간에 유대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농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목표대상의 설정과 그에 맞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도시민 유입 목표계층에 대한 단계별 유입전략

목표대상은 교류형, 귀향형, 출퇴근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교류형은 단기적으로 교류기반을 정비·확충하여 방문회수 및 기간을 늘려가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은퇴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귀향형은 은퇴 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마을의 정주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출퇴근형은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전문직, 사무직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주택단지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주택단지개발을 통해 유입되는 출퇴근형 주민은 기존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마을간 교류프로그램

이 상시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민도 농촌에 내집갓기를 원하고 있다. 도시민은 당장의 이주보다는 농촌의 방문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농촌에 있는 내집을 갖고 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농촌이주 희망자중 1/3은 본인 소유 필지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싶다는 목가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기존마을이나 신규단지의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살고 싶다는 의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민들의 요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에서부터 택지개발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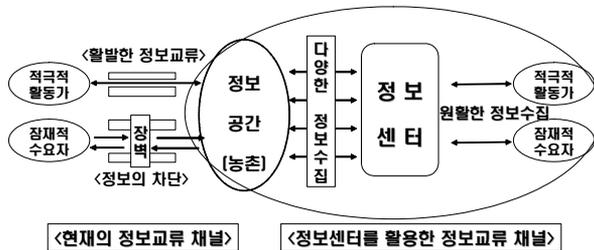
단기적으로 정보제공단계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귀농·귀촌인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농촌경관주택 및 맞춤형 주거공간 정비모델의 개발과 보급 등 친환경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즉, 농촌방문과 귀농·귀촌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One-Stop Service”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가 브랜드를 창조한다.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위한 마을의 정주환경 및 생활환경정비는 휴양과 주말농원 기능을 겸비한 휴양 및 레저형 방식과 도시근교로서 인근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전원 주거형 방식 등 정착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농촌을 좋아하는 이유로 전원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농촌이주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를 고려한 정비는 전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건강을 소재로 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가공시설과 휴양공간이 선택적으로 조화된 공간정비가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일반화된 정보에서부터 특화된 정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맞춤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과 마을에 브랜드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일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보는 체계화 되지 못한 관계로 잠재적 수요자에게는 항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담당하는 농촌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농촌정보교류채널 개념도

넷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농촌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농촌주민의 소득과 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 분야를 꼽고 있다. 농촌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휴양과 휴식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농촌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문제, 의료, 교육문제 및 기초생활환경 개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기초생활환경의 정비는 국가적 SOC 분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분야의 기반투자를 토대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촌관광휴양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의 많은 부분

이 개별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로 돌아가는 공공재적인 속성을 인정하여 공공분야의 투자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득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주거시설 및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농촌을 거주하기에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초기에 주택 등에 과다하게 투자한 후 농촌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나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농촌이주 및 방문에 대한 국민의 의향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농촌개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촌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설문 대상자를 연령을 고려하되, 학교에 대한 체계적 표본추출을 통하여 학부모를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하여 선정하고, 대학생을 표본추출하여 젊은층을 선정한 가운데, 농촌 이주 및 방문에 대한 국민의식 경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도시에 거주자 중 많은 응답자들이 농촌을 방문하거나, 장래에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주 희망 시점으로 당장보다는 10년 이후와 같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민이 휴양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귀촌을 원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촌정보 제공은 물론 교육 및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을 알고 싶어하고, 농촌에 내집을 갖고 싶어 하는 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택지개발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촌 희망자 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이주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휴식·휴양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특화시켜 도시민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농촌정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의 협력관계 구축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즉, 농촌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휴양과 휴식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농촌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문제, 의료, 교육문제 및 기초생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 이주에 관심을 표명하는 민간의 움직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농촌인구 유치 정책에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 및 자율성을 활용하려는 노력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인구 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정주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돕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응답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관련 정책의 분석은 소홀히 다루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농촌 인구 유치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동원·박혜진. (2007).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수. (2007). 은퇴후 전원생활 은퇴자 웰빙 귀촌 세계적 추세. 월간 *midas*. http://www.yonhapmidas.com/07_06/spe/04_005.html.
- 농림부. (2004). *2004년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실태조사 결과 보고*
- 농림부. (2004). *보도자료 ‘도시민 5명 중 1명꼴로 향후 1년내 농촌관광계획’*.
- 이희찬 외. (2005). *농촌사회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연구*.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 정영찬 외. (2002). *SPSS프로그램을 활용한 따라하는 통계분석*. 서울: 크라운출판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Bennett, Jeff W. Martin van Bueren, and Stuart Whitten. (2004). Estimating Society's Willingness to Pay to Maintain Viable Rural Communities.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 Vol. 48 Issue 3. pp. 487-512.
- Chell, Elizabeth. (1985).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 Fishbein, M. and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Tylor, Matthew. (2008). *Living Working Countryside: The Taylor Review of Rural Economy and Affordable Housing*. West Yorkshir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2007). *Agenda for a Living Countryside: Multi-year Programme 2007-2013*.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논문투고일: 2009. 10. 16
 1차수정일: 2009. 11. 23
 2차수정일: 2009. 12. 8
 게재확정일: 2009. 12. 18